

KIEP 국제금융 전문가 간담회 참고자료

1

우리경제의 대외여건 평가

◇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은 과거 두 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크게 개선되어 현재 전반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상황

① (경상흑자 지속) 외환위기 이전 만성적 적자구조를 나타냈던 경상수지는 흑자구조로 전환되며 67개월 연속 흑자 기록

○ 최근에는 유가 하락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

* 경상수지(억불)(GDP대비(%)) :

(‘11말)186.6(1.6) (‘12말)508.4(4.2) (‘13말)811.5(6.2) (‘14말)843.7(6.0) (‘15말)1,059.4(7.7) (‘16말)986.8(7.0)

② (대외건전성 개선) 경상수지 흑자와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으로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 지표가 크게 개선

○ 대외자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외순자산국으로 전환

* 대외순자산(억불): (‘11)△810 (‘12)△944 (‘13)△372 (‘14)842 (‘15)2,045 (‘16)2,785

○ 시장 충격 발생시 외화유동성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외채 구조도 크게 개선

* 단기외채/총외채(%): (‘97)36.1 (‘08)47.2 (‘15)26.3 (‘16)27.6 (‘17.9월)29.3

** 단기외채/보유액(%): (‘97)286.1 (‘08)74.0 (‘15)28.3 (‘16)28.3 (‘17.9월)31.1

○ ‘97년 외환위기 당시 최저 39억불까지 감소했던 외환보유액은 현재 사상최고치인 3,845억불(‘17.10월말)로 100배 가까이 증가

* 외환보유액(억불): (‘97.12.18)39 (‘08)2,012 (‘15)3,680 (‘16)3,711 (‘17.10월)3,845

③ (국가신용등급 상승) 대외측면 뿐만 아니라,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털이 강화되면서 역대 최고 신용등급 달성

○ S&P사 기준으로, ‘97년 위기당시 B+까지 떨어졌던 국가신용등급은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AA까지 상승(11단계)

* S&P: (‘97)B+ → (‘17)AA / Moody's: (‘97)Ba1 → (‘17)Aa2 / Fitch: (‘97)B- → (‘17)AA-

** 중국 : S&P ‘17.9월 AA- → A+ / 무디스 ‘17.5월 Aa3 → A1

영국 : 무디스 ‘17.9월 Aa1 → Aa2

◇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상 향후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잠재

① 대외 여건

- (주요국 통화정책 변화)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·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
 - 美 연준의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, 유럽 중앙은행(ECB)의 자산매입 축소 본격화
- (국제 무역질서 변화)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국가간 통상갈등 심화 우려
 -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상수지 흑자국에 대해서는 양자·다자 차원에서 불균형 조정 압력이 심화될 가능성
- (정치적 불확실성) 주요국 정치 상황 불확실성이 지속되며, 잠재적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

② 대내 여건

- (지정학적 리스크)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심화 가능성
 - 아직은 북한 리스크의 시장영향이 제한적이나, 향후 北 도발 및 美 대응 강도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존재
- (국내 금융부문 위험) 가계부채 문제, 부동산 시장 변화 등이 거시·금융부문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 필요

☞ 양호한 대외건전성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인 발생시 외환·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

◇ 향후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대외부문 안정성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 경주

① (거시경제의 안정성 유지) 근본적으로 거시경제 측면의 불안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조율 및 리스크 관리 노력 지속

- 거시·금융정책 관계 당국*이 함께 참여하는 '거시경제금융회의'를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지속 모니터링

* 기획재정부, 한국은행,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국제금융센터

- 국내외 금융시장, 금융기관 건전성, 실물경제 여건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점검하고 필요시 공동 대응

② (대외건전성 유지)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한 거시건전성 제도*를 활용해 대외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

* 선물환포지션 한도 신설('10.10월),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폐지('11.1월),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('11.8월)

- 단기외채 증가에 따른 경제 전반의 외화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

- 시장여건 변화시 선물환포지션 한도*, 외환건전성 부담금** 등의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

* '16.7.1 포지션 한도 확대: (국내은행)자기자본대비 30 → 40%, (외은지점)150 → 200%

** '16.12.29 유사시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(현 10bp)의 하향조정 법적 근거 마련

- 외화 LCR 도입* 등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대비해 금융기관 외환건전성 제고 노력도 지속

* 高유동자산/30일간 순현금유출액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지표로 Basel III 권고사항(모니터링 지표)이나 우리나라는 의무사항으로 도입

- 외환보유액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, 외화자산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여 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확대

③ (외환시장 안정)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

- 대내외 여건 변화 및 이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(24시간 외환시장 모니터링)
-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되, 대내외 충격에 따른 쏠림 현상 등으로 급변동하는 경우 시장안정 조치를 실시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

④ (대외 신인도 관리) 리스크 요인 발생시 우리 경제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

- 주요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(IR), 외신 간담회 등을 통한 소통 노력 지속
- 해외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신용 등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국제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접촉·설득 노력 강화

⑤ (국제금융·외환시스템 선진화) 외환분야에서 핀테크 지원 및 금융회사 업무 확대

- (핀테크 창업 지원) 다양한 핀테크 기술 및 영업방식의 도입을 허용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추진
 - (환전) 환전 배송 서비스, 키오스크 통한 무인환전 등 새로운 환전서비스 도입방안 검토
 - (송금) 핀테크 스타트업의 소액해외송금업 시장 진출 원활화를 위해 지원*

*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실명확인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권 공동인프라 구축 추진('17.10.)

- (금융회사 업무 확대) 외국환업무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것의 시장 영향을 보아가며 추가적인 확대여부 검토
- 기업에게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(자기자본 4조원 이상)에게 기업고객 대상 환전업무 허용

⑥ (국제 공조) 금융·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美·中 등 주요국, 국제금융기구와의 정책공조 노력 강화

- 양자 및 G20, ASEAN+3 등 다자회의체, IMF 등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위기대응 역량을 제고
- 특히, 내년 ASEAN+3 공동의장국(韓·싱가폴) 수임을 계기로 역내 금융협력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

[참고 : G20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대응방향]

- ① G20의 핵심 의제인 SSBIG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공조 노력 강화 → 특히, 포용성 증진과 생산성 제고를 통한 성장 모멘텀 확산 방안 논의에 기여
- ② G20 IFA WG 공동의장국(韓·佛)으로서 IMF의 제15차 쿼타일반검토(GRQ) 기한내 합의 추진**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주도
 - * 쿼타일반검토(GRQ, General Review of Quotas): IMF가 5년마다 실시하는 쿼타증액·배분방식 검토로서, 제15차 GRQ의 마감시한은 '19.10월
- ③ 통화정책 정상화, 보호무역 심화 등 세계경제의 주요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책공조 촉구
 - * 관련 내용이 장관회의, 정상회의 합의문에 반영되도록 회원국간 공조 강화
- ④ G20 회의를 계기로 주요 회원국과의 양자 경제·금융 협력 강화